

라캉 은유의 시각적 의미작용을 통한 무의식적 기호 연구

Unconscious Signs in Visual Signification of Lacan's Metaphor

박상혁

충청북도청 산업디자인실

Sang-Hyeok Park(pgamja@korea.kr)

요약

시각이미지에 나타나는 메시지 담론의 본질은 시각이미지 발신자와 이를 받아들이는 수신자 모두의 경험과 문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시각메시지의 의미작용은 상호주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발신자의 기호 생산과 은유적 기호가 수용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 지어져 있다’는 라캉의 이론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접근한 라캉의 은유 공식을 시각적 이미지에 적용하여 은유 구조와 의미작용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은 시각적 은유 표현에 나타난 기호의 다양한 층위를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모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기호의 은유적 구조와 분석 매트릭스는 시각적 이미지 생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전개와 실천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 향후 분석결과와 더불어 수신자 감성 반응의 실증적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 중심어 : | 라캉 | 무의식 | 은유 | 의미작용 |

Abstract

The universe of discourse presented in the visual image is bound up with the experience and culture of parties; its sender and recipient. Signification of visual message is revealed through the mutual independent process. The mechanism where production of signifiant by sender and reception of metaphoric signifiant function unconsciously can be applied to Lacan's theory; "The unconscious is structured like a language". By applying Lacan's metaphoric formula which takes linguistic approach to visual image it is suggested that analysis of signification is possible. This analysis can be a base for seeking varied level of signifiant presented in visual metaphor logically and practically. Metaphoric structure of the signifiant and the matrix analysis can develop a creative idea and propose a practical way for the visual image production. Thus empirical study about nastic response and the future analysis result is expected to be possible.

■ keyword : | Jacques Lacan | Unconscious | Metaphor | Signification |

I. 서론

1. 연구목적

시각이미지는 기호의 선택과 결합을 통하여 메시지

로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자의적으로 시각 기호를 선택하고, 그것의 결합을 통하여 의미가 결정되며 의미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경험과 관습을 통해 잠재된 무의식(unconscious)을 활성화시킨다. 시각적 이

접수일자 : 2014년 12월 29일

수정일자 : 2015년 02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2월 26일

교신저자 : 박상혁, e-mail : pgamja@korea.kr

미지를 접하게 된 수용자는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통해 자동화 모드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인간의 뇌에 대한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익숙한 시각적 이미지의 도상을 자동화 모드로 가동하여, 자신도 모르게 습득되어 있는 정보의 회상률을 높인다. 그리고 다시 의식으로 연결되면서 기호의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만들어 낸다. 즉, 잠재된 무의식 속에서 이미지를 인지하여 정서적 반응의 확신을 통해 소비자는 행동적 태도로 옮겨간다.

이에 본 연구는 라캉(Jacques Lacan)의 무의식의 구조를 바탕으로 은유의 메커니즘과 기표(signifiant)가 은유적으로 작용할 때의 구조를 파악한다. 다차원 의미작용을 라캉이 정립한 언어의 구조적 측면 이론을 도입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언어적 측면을 대입하여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라캉의 무의식 이론을 통해 시각적 은유 이미지 구조를 연구한다. 은유 공식(의미화 대치 공식)을 시각적 이미지에 적용하여 은유적 기호의 구성 체계를 밝힌다. 또한 은유적 시각이미지의 의미작용을 분석하는 것과 무의식적 기호로서 기표의 논리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의식을 언어적(비언어적) 관점의 접근과 라캉의 은유 공식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에 나타난 은유 구조 분석 및 생산 매트릭스로서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라캉의 이론 중 무의식에 대한 언어적 접근을 시각적 이미지에 적용한다. 기표와 기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기표를 중심으로 은유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라캉의 은유 공식으로 시각이미지를 분석하여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강렬한 컬러와 컨셉으로 대중문화 분야를 표현하는 데이비드 라샤펠(David LaChapelle)의 작품 이미지로 한다. '아메리칸 포토 매거진'에서 세계 사진계의 영향을 주는 10인에 선정된 그는 종교, 성, 사회, 문화 등의 근본적인 주제를 이미지로 다루며, 물질만능주의, 소비문화, 집착 등을 비판한

다. 다각적인 시각의 접근으로 사진계, 광고계, 예술계 등에서 초현실적이고 은유적 표현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그의 작품이 광범위한 소통을 위한 현대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 그리고 인간에게 내재된 욕망을 기표 대치로 표현한 그의 작품은 은유적 구조와 기호의 의미작용을 분석하기에 적절할 것이다. 작품의 범주는 크게 잡지, 광고, 예술작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잡지의 표지에 사용된 이미지를 본 연구의 분석 범위로 정하고자 한다. 시각적 이미지에서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난 기표 구조를 통해 기호의 의미작용을 분석한다.

II. 시각적 기호와 무의식

1. 라캉의 무의식

무의식은 놀라운 속도와 정확도로 언어를 다루고, 인식을 감지하고, 기타 수많은 작업들을 처리함으로써,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마음으로 하여금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해준다[1]. 그리고 의식 내부에 존재하며 이를 움직일 수 있어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작용이며, 자율적 의식의 본질을 형성하고 극성화된 흐름의 방향과 극성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정신의 출현과 움직임을 안다[2].

다시 말해서 무의식은 인간의 심적(정신적)현상과 연관이 있고, 의식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 즉 의식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사고이며, 기억, 욕망(욕구) 등을 포함한 내적 세계를 지칭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억압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와 달리 라캉은 기표의 논리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며, 초월적인 질서들에 작용하는 기표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상계¹⁾와의 관계 속에서 무의식

1) 라캉은 인간 정신을 상상계, 상징계, 실체계로 나타낸다. 이는 같이 작용을 하지만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세계이다. 라캉은 무의식을 연구하면서 상상계를 연구하였으며, 상징계를 거쳐 실체계를 통해 상상계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 상상계 : 거울단계로 이미지에 매개되는 대상세계
- 상징계 :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계로 주체를 구성하고 주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
- 실체계 : 상상계와 상징계가 연결되어 두 영역이 아닌 것을 대표하는 것

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Claude)는 무의식이 논리적, 인지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주체간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프로이트와 레비스트로스를 계승한 라캉은 무의식을 구조적 차원에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철학, 언어학, 기호학을 적극 차용한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언어적 무의식을 강조한다. 이것은 그가 말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되어 있다’는 논제와 연결된다.

여기에 나타나는 언어는 단순히 발화된 말이나 글로 쓰인 텍스트뿐만 아니라 차별관계에 근거한 모든 의미화 체계를 가리킨다. 무의식은 그것이 부호화와 판독, 또는 암호화와 해독을 포함하는 의미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무의식은 의미작용을 하는 어떤 것이며 해독되어야 한다[3].

그리고 무의식은 라캉의 표현대로 ‘타자의 담론’이 된다. 타자의 담론으로서 무의식을 말한다 것은 그것의 언어성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무의식이 본질적으로 의미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 준다 [4]. 이 타자(autre)는 자기가 아닌 그 외의 사람으로 언어라는 상징을 대표하는 것이며, 언어는 기호로써 나타내는 내용의 의미가 아니고 표현되어진 기표이다. 라캉은 무의식의 정의를 몇 가지 특징들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무의식의 주요 특징

무 의 식	
· 초개인적	· 상징계의 효과
· 기표의 자율권	· 상징계의 균열, 단절
· 대타자의 욕망	· 알 수 없는 지식

위의 표와 같이 라캉은 무의식을 상호주체성에 영향을 받고, 내가 구성되어있는 상징계에서 온 나의 언어가 무의식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언어가 상징의 연쇄 속에서 실패하고 혼란스러울 때 무의식이 드러난다. 이것은 상징계의 균열과 단절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의식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초개인적인 것이고 상징계의 효과이며, 기표가 자율적으로 선택되어지는 빈 공간으로 알 수 없는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2. 무의식의 의미화

소쉬르의 기호 체계를 보면 지각 가능하고 전달 가능한 물질적 부분인 기표와 개념을 나타내는 의미적 부분인 기의가 결합하여 기호가 만들어지고 의미작용 된다. 또한 그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 관계를 외부현실에 좌우되지 않는 자의적이고 관습적인 것으로 보았다. 한번 결합되면 하나의 기호로 작용하는 것이다.

소쉬르가 나타난 기호체계는 기표와 기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호가 만들어지고 작용한다는 것, 즉 기표의 단일한 기호는 의미가 없고, 다른 기호와 기호들의 변별적 관계들을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의 언어학 특징이다.

라캉은 소쉬르의 기본적 입장을 계승하지만 기표와 기의의 위치를 바꾸어 기표가 기의 보다 우위에 있고, 의미의 주체에 대해서는 상징계가 우위에 있다는 무의식의 법칙으로 기표의 논리를 설명한다. 그는 기호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 소쉬르의 기호의 체계와 라캉의 무의식 연산식

라캉의 무의식 연산식은 기표들이 다른 기표들과의 변별적 관계에 의한 것이고, 기의들은 기표 밑으로 미끄러져 가고 그것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로 수평선은 기표와 기의의 분리선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의미화에 대해서 저항이 일어난다. 이는 비대응성 논리(non-correspondence)를 가지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하나의 기표(S)에 다수의 기의(s1, s2, s3, s4)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표들은 결합하면서 연쇄사슬을 통해 체계를 이루는데 기표 밑의 기의는 다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고 안정된 의미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의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연산식의 분리선을 넘어 기표와 기의가 결합되어야 한다. 여기서 라캉은 기표와 기의를 임시적으로 묶어주는 일종의 고정점이 상

정하는데, 바로 그 지점이 의미의 전달자인 주체(subject)가 발생하는 곳이다[5]. 만약 기의가 계속된 미끄러짐 현상이 생긴다면 이것은 의미작용의 오류나 의미작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고정점은 미끄러지는 기의를 잡아주고 기표와 결합되어 의미화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III. 은유적 구조

1. 수사학적 은유와 기호체계

수사학의 수백 가지도 넘는 문체(figure) 구분 중 메타포는 현대 수사학 연구가 시도하고 있는 문체(또는 수사법) 유형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18세기 칸트(Kant)가 은유 능력을 일상적으로 지니는 창조성에 대한 능력의 표현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것처럼 언어 일반은 물론 이미지의 창조에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6]. 수사학적 은유는 고전 수사학의 비유론(tropology)에서 하나의 용어를 다른 하나의 용어 대체를 통한 비유적(유사, 닮음 관계) 표현의 하나로 보았다. 그리고 의미론, 도상적 차원에서 비교가 될 때 가능해지는 수사법이다. 그리고 인간의 원시언어를 살펴보면 추상적이면서 구체성을 가지는 알레고리(allegory)에 의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의식성이 압축된 상징적인 은유적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 또는 외계 사물에 대한 지시(指示)의 은유성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시사한다[7].

이와 같이 언어적 기호와 시각적 기호는 은유의 구조적 내용을 기호화하기 위한 것이며, 의미생성을 거쳐 수용자에게 이해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신자에게 의미작용 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은유가 무의식의 기호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언어와 비언어(시각이미지) 모두가 기표의 고리에 의해 기호적으로 재현된 것이다. 무의식의 재현성은 내적인 기호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기호의 메시지가 비유적 측면과 결합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기호적 대치 현상(substitutability)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기호학 창시자 퍼스(Peirce)의 ‘어떤 다

른 것을 의미 있게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기호라는 정의와 연결된다. 여기에서 ‘대신’은 은유적, 비유적 차원으로 기호작용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언어적 은유와 시각적 은유를 비교하여 보면 언어적 은유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내면에 잠재되어있던 개념체계를 연상, 유추 등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시각적 은유는 기표의 닮음(유사성), 혹은 기표 통한 기의에 근거를 두고 의미의 유사성, 즉 속성의 공유로 작용한다. 물론 시각적 은유는 언어적 은유의 개념체계를 포함하고 있고, 시각적 유사성과 의미의 유사성을 대신하는 것은 정신현상을 통한 기표의 무의식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의식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호의 형식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무의식계의 기호 내용을 간파할 때 비로소 효율적인 은유의 기호체계가 이루어진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2. 은유의 특징

은 유	
· 유사	· 계열체 / 선택적
· 응축	· 속성 공유
· 기호의 재현(도상기호)	· 알레고리 (메타 커뮤니케이션)

결국 시각적 은유는 도상기호이며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은유가 시각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익숙한 시각적 이미지와 익숙하지 않은 시각적 이미지 간의 결합 관계가 된다. 난해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언어적 은유가 사용되듯이 시각적 영역에서 은유도 마찬가지이다[8].

시각 은유에 나타나는 도상은 시각적 의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은유를 통해서 구조화 되지 않은 것을 구상적, 구체적인 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호학자 퍼스의 기호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호체(표상체), 대상체, 해석체라 하였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연계하면서 삼원적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1차성(표상 차원으로 독립적 존재), 2차성(원인과 결과의 양자관계를 전제로 하는 행위 차원), 3차성(실현과 법칙을 통한 중재의 의미작용 차원)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정한다. 3차성의 개념은 유용성과 연관이 있으므로 1차성과 2

차성을 포함한다. 2차성은 1차성을 포함하지만 1차성은 그 자체로 개별기호이다. 이 세 가지 범주를 기호-사물의 관계에 적용하면 퍼스의 기호 이론에서 도상, 지표, 상징 구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영상, 도형, 은유 구별까지 생겨난다[9]. 영상은 사물의 성질이고 도형은 사물의 구조를 나타내며, 은유는 유사를 표상함으로써 의미작용을 달성한다. 따라서 도상의 하위유형은 기호 관계에서 모방, 유추, 유사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본다면 은유와 도상성이 서로 관련이 있고, 도상성은 이미지를 수용하는 수신자가 시각이미지의 구성체를 구조화하기 때문에 언어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준다.

2. 라캉의 은유 과정과 은유 공식

라캉의 은유는 기호와 연관하여 “은유의 창조적인 설팔은 두 기호 사이에서 솟아나는데, 기표적 연쇄 속에 이 두 기호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은유는 무의미로부터 의미가 생산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 한다”라고 정의한다[10]. 그리고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적인 구조이며, 언어라는 것은 기표의 연쇄에 의해 유지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기표의 연쇄는 먼저 은유에 의해 가능해진다[11]. 은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지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라캉은 은유를 기표가 또 다른 기표로 대체하는 것이라 한다. 여기에는 주체를 재현(represent)을 포함하고 있고, 기표의 연쇄성에 의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야콥슨이 언어를 구분한 계열적 차원과 통합적 차원으로 기표를 설명할 수 있다.

계열적 차원은 수직 관계(유사 similarity 관계)에서 직접적이고 선택적이다. 유사성에 의해 다른 주제를 도입하고 은유적 축에 작용하는 언어의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통합적 차원은 수평 관계(인접 contiguity 관계)에서 통시적이며, 조합에 의한 결합적인 환유 축이다. 이러한 야콥슨의 은유와 환유의 개념을 차용한 라캉은 이를 무의식의 기본적인 것으로 보았다.

은유가 기의는 기표의 그물로부터만 자신(기의)의 일관성(의미)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에서, 기표의 대체라는 성격은 기의에 대한 기표의 자율성,

따라서 기표의 우위를 증명해준다[12]. 기표가 우위에 있다고 해서 기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표에 의해 기의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기표들의 사슬적인 관계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의 호수’의 언어적 은유를 본다면 S1(마음)을 S2(호수)로 기표가 대체되면서 의미작용 된다. 즉, 하나의 기표들의 구조를 본다면 S1과 s1(마음의 개념)이 S2의 기의의 역할(s2)을 한다. 여기에서 S2는 S1과 s1의 결합으로 은유가 형성되는데 이는 기표의 교체만 그치지 않고 s2가 S1과 s1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캉의 은유의 과정은 주제 발생과 연관이 있고 기표 간의 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표의 자율성에 의한 것이다. 기표가 다른 기표를 발생시킬 때 의미가 발생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 효과를 통해서 주제(the subject)를 발생시키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의 기본 구조는 변증적 통사론 덕분에 진화의 원리와 총체성의 범주적 형태를 화해시키는 데 이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와 ‘여럿’사이의 긴장은 범주와 그 항들 사이의 변증법적이고 불연속적인 관계를 들여옴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13].

어떤 기호가 의미를 만드는 것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담론 속에서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은유적 과정은 이전의 기표 S’를 가로 분리선(의미화작용) 아래로 내려가도록 미끄러짐으로써 무의식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기표 S를 만들어 낸다. 기표의 계열적 차원이 결합되면서 통합적 차원을 형성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무의식적 주체의 생성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라캉의 은유 공식에서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frac{S}{S'} \cdot \frac{\$'}{X} \rightarrow S\left(\frac{I}{s}\right)$$

그림 2. 라캉의 은유 공식(의미화 대체 공식)

무의식적 재현적 재료 \$’는 S로 대체되어 의미화 되면 기표 S는 정면으로 부상하고 무의식적(I) 기의(s), 즉 어떤 의미의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무의식성은 I가 전달해준다. s는 \$’에서 S의 대체 과정

에서 생성된 의미이고, 끊임없이 기표 밑으로 미끄러져 가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기표들과의 관계에서 발생시킨다. 은유가 만들어지는 순간 \$'란 기표가 생기지만 최초의 기표는 사라지는데, 이것은 은유의 성공을 의미한다. 사라지는 자리에 S가 오지만 여기에는 연쇄적인 기표를 끌고 오는 메커니즘이 의미를 만들어낸다. 사라진 기표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기표로 연결되는 것이 무의식이다. X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라캉은 야콥슨의 선택과 치환이라는 메커니즘을 차용하여 단어와 단어의 결합, 그리고 기표와 기표의 결합, 하나의 기표가 다른 기표를 대체하여 주체를 발생시키는 것이 라캉의 은유 공식의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유화 과정을 통한 의미와 주체의 생성이 \$'과 S의 차이와 대립을 통한 상호 비판적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 그것이 존재 차원과 아무런 인과론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의성에 바탕을 둔 재현의 기호적 이론이다[14]. 결국 \$'과 S는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는 S를 위해서 주체를 재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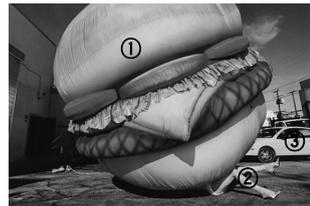
IV. 시각 은유의 무의식적 의미작용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으로 한 데이비드 라사펠의 작품은 다양한 기호의 융합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각각의 기호가 융합을 통해 수용자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은유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므로 은유 기호 체계를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은유의 구조를 라캉의 은유 공식에 시각이미지를 적용한다. 퍼스의 기호유형인 도상, 지표, 상징에서 기표가 표상하는 도상의 하위유형 특성을 기호관계에 따라 모방, 유추, 유사로 나누어 이미지를 분석한다. 기표의 구조를 통한 무의식적 요소와 의미작용을 알아보면, 주지와 공유소, 매체와의 구조에서 은유의 유형을 나누어 본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은유 구조를 통한 메타언어적 무의식의 기호와 의미체계를 연구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적(I) 기의(s)의 분석을 객관화하고자

설문자(15명)에게 이미지를 제시하고, 인지되는 의미들을 추출하기 위해 자유연상법(Free association method)을 이용한다. 사례분석을 위한 각 이미지의 기표 중심으로 즉각적인 의미를 나열하고 가장 많이 사용된 비슷한 의미를 통합한 후, 의미의 범주를 구성한다. 무의식적으로 저장된 경험, 관습 등의 내적 재현을 해체하여 인지되는 의미들은 이미지 수용자의 욕망으로 나타난다.

1. 'Death Hamburger'의 사례분석



- ① $\frac{\text{패스트푸드}}{\text{햄버거}} \cdot \frac{\text{햄버거}}{X(\text{주체에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arrow \text{패스트 푸드} \left(\frac{1}{\text{인스턴트 음식}} \right)$
- ② $\frac{\text{마른 여자}}{\text{여자다리}} \cdot \frac{\text{여자다리}}{X(\text{주체에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arrow \text{마른여자} \left(\frac{1}{\text{약한 인간}} \right)$
- ③ $\frac{\text{승용차}}{\text{차}} \cdot \frac{\text{차}}{X(\text{주체에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arrow \text{승용차} \left(\frac{1}{\text{편리}} \right)$

그림 3. Death Hamburger, 2001

표 3. Death Hamburger의 종합적 분석

기호체계		
도 상 (기표가 표상하는 것)	모방	①햄버거 ②여자다리 ③차
	유추	①패스트푸드 ②마른여자 ③승용차
	유사	①인스턴트음식 ②약한 인간 ③편리
종합적 분석		
((무의식)은 욕망의 기의인 ①인스턴트 음식, ②약한 인간, ③편리와 결합되는 ①패스트푸드, ②마른여자, ③승용차의 기표가 욕망의 기의 s를 대체했기 때문에 사라진 \$'은 억압되는 것이다. 기표들은 억압을 통해서 기의 속에 나타나고 주체에게 무의식으로 나타난다.		
의미작용		
의미의 유사성을 통한 은유적 이미지이다. 각각의 기표들로 기의를 유추해 보면 현대 사회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만들어지는 인스턴트 음식을 통해 건강의 고통과 유희를 받는 우리 인간 모습의 의미로 의미작용된다.		
은유적 구조 유형		
공유소가 빠지고 햄버거와 죽음이 연결되는 등가의 구조		

2. 'Lil' Kim: Luxury Item' 의 사례분석



- ① $\frac{\text{흑인여자}}{\text{여자}} \rightarrow \text{흑인여자} \left(\frac{\text{창피}}{\text{X(주제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
(당당하지 못한)
- ② $\frac{\text{루이비통}}{\text{문양}} \rightarrow \text{루이비통} \left(\frac{\text{명품}}{\text{X(주제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
- ③ $\frac{\text{가족모자}}{\text{모자}} \rightarrow \text{가족모자} \left(\frac{\text{루이비통 제품}}{\text{X(주제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
- ④ $\frac{\text{금발머리}}{\text{머리}} \rightarrow \text{금발머리} \left(\frac{\text{미(美)}}{\text{X(주제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

그림 4. Lil' Kim: Luxury Item, 1999

3. 'Pieta with Courtney Love' 의 사례분석



- ① $\frac{\text{성모 마리아}}{\text{여자}} \rightarrow \text{성모} \left(\frac{\text{슬픔}}{\text{X(주제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
마리아
- ② $\frac{\text{예수}}{\text{남자}} \rightarrow \text{예수} \left(\frac{\text{죽음}}{\text{X(주제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
- ③ $\frac{\text{천사}}{\text{아기}} \rightarrow \text{천사} \left(\frac{\text{희망}}{\text{X(주제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
- ④ $\frac{\text{주사자국}}{\text{상처}} \rightarrow \text{주사자국} \left(\frac{\text{마약중독}}{\text{X(주제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

그림 5. Pieta with Courtney Love, 2006

표 4. Lil' Kim: Luxury Item의 분석

기호체계		
도상 (기표가 표 상하는 것)	모방	①여자 ②문양 ③모자 ④머리
	유추	①흑인 ②루이비통 ③가족모자 ④금발
	유사	①창피 ②명품 ③루이비통 제품 ④미(美)
종합적 분석		
최초의 기표 ①여자 ②문양 ③모자 ④머리는 새로운 기표 ①흑인 ②루이비통 ③가족모자 ④금발에 의해 사라지면서 은유적 성공을 이룬다. 사라지는 기표 자리에 새로운 기표가 오기 전에는 연쇄적인 기표 끌고 들어와 은유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의미작용		
형태적 유사성의 은유적 이미지이다. 섹시 스타인 Lil' Kim(흑인여자)이 등장하여 여성의 상품화를 표현한다. 하지만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것은 명품에 대한 소비성향을 주인공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흑인의 피부와 피부에서 보여주는 루이비통의 심벌 문양은 가족에 대한 제품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금발을 통해 미(美) 대한 기준을 명품에 두고 의미작용 한다.		
은유적 구조 유형		
직접적인 제품이미지(혹은 기표)가 빠지고 매체만 드러난 생략의 구조		

표 5. Pieta with Courtney Love의 분석

기호체계		
도상 (기표가 표 상하는 것)	모방	①여자 ②남자 ③아기 ④상처
	유추	①성모마리아 ②예수 ③천사 ④주사자국
	유사	①슬픔 ②죽음 ③희망 ④마약중독
종합적 분석		
기표 s, ①코트니러브 슬픔 ②커트코베인 죽음 ③희망 ④마약중독은 끊임없이 기표 밑으로 미끄러져 가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기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차적으로 발생한다. 무의식에 미끄러지면서 기표와의 변별적 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한다.		
의미작용		
'피에타(자비를 베푸소서)'란 의미와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의 유사성이 바탕이 된 은유적 이미지이다. 여자(커트니러브)는 성모마리아를 남자(커트코베인)는 예수를 기표를 대치하여 피에타의 의미를 생성한다. 마약 중독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커트코베인의 안고 있는 코트니러브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시대의 피폐한 현실의 슬픔 속에서 절망과 미래의 희망(커트니러브의 삶)을 담고 있다.		
은유적 구조 유형		
주지와 매체, 또는 매체와 주지가 연결된 결속의 구조		

4. ‘Addicted to diamonds’의 사례분석



- ① $\frac{\text{노출된 모습}}{\text{여자}} \cdot \frac{\text{여자}}{X(\text{우체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arrow \text{노출된 모습} \left(\frac{1}{\text{욕망}} \right)$
- ② $\frac{\text{마약}}{\text{다이아몬드}} \cdot \frac{\text{다이아몬드}}{X(\text{우체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arrow \text{마약} \left(\frac{1}{\text{중독}} \right)$
- ③ $\frac{\text{돈}}{\text{빨대}} \cdot \frac{\text{빨대}}{X(\text{우체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arrow \text{돈} \left(\frac{1}{\text{가치(富)}} \right)$
- ④ $\frac{\text{비친 얼굴}}{\text{거울}} \cdot \frac{\text{거울}}{X(\text{우체에게 고정되지 않은 의미})} \rightarrow \text{비친 얼굴} \left(\frac{1}{\text{자신 모습}} \right)$

그림 6. Addicted to diamonds, 2001

표 6. Addicted to diamonds의 종합적 분석

기호체계		
도상 (기표가 표상하는 것)	모방	①여자 ②다이아몬드 ③ 빨대 ④ 거울
	유추	①노출 ②마약 ③ 돈 ④ 비친 얼굴
	유사	①욕망 ②중독 ③ 가치(富) ④ 자신 모습
종합적 분석		
은유적 과정은 처음 사라지는 \$' ①여자 ②다이아몬드 ③ 돈 ④ 거울이란 기표가 있고, 이를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S ①노출 ②마약 ③ 빨대 ④ 비친 얼굴로 대체되면서 이루어진다. X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의식적 1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진다.		
의미작용		
기표의 유사성과 동작의 유사성을 동반한 은유적 이미지이다. 다이아몬드와 마약을 연결하여 다이아몬드의 중독 즉, 물질주의에 대한 가치(富)를 욕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은 메시지로 의미작용 되고 있다.		
은유적 구조 유형		
주지와 매체, 또는 매체와 주지가 연결된 결속의 구조		

V.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개념체계에 따라 유사성의 유추를 하고 의미를 만들며, 무의식적으로 인식

하고 또다시 의미를 공유한다.

언어나 비언어적 기호는 발신자의 메시지가 의미를 띠는 것은 수신자에 의해서 확인되고 인정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시각이미지를 접하고 기표를 인지하였을 때, 고정된 의미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은유 과정(기표의 유추와 유사성)을 통해 기표의 무의식적 의미가 생성되어 의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은유적 시각이미지를 라캉의 은유 공식에 적용한 결과 이미지별로 메시지의 특징과 은유 구조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메시지의 특징은 직접적이지 않고 구체화 되지 않은 것을 구조화된 근원영역으로 은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은유의 구조 분석과 의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라캉의 이론은 다의적인 성격을 가진 기표의 의미작용 분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다양한 각도의 해석이 가능하여 의미를 결정 및 해명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은유적 이미지와 관련한 앞으로의 연구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이미지는 발신자 측면에서 다층위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신자의 무의식적 관점과 이미지에 대한 기억 또는 의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미디어에 노출된 시각이미지의 생산과 분석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창의적 기표의 선정과 관련을 염두한 이미지 생산은 중요하다.

셋째, 다층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기호 유형 뿐 만 아니라 기표의 구조를 바탕으로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기표 생산의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이미지의 의미작용은 인간의 의식 뿐 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의미를 통해서 언어 혹은 비언어적 기호와 인간의 상상적 작용에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로써 시각이미지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은 수신자 입장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시각이미지에 나타난 기표를 언어적 텍스트와 연결하여 이미지를 읽기를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라캉의 무의식 연구와 은유 공식을 이용

한 시각적 은유 이미지 분석은 향후 수용자의 감성을 이용한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창조적 기호 생산을 위한 동기와 실증적 연구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Leonard Mlodinow, *Subliminal : How your unconscious mind rules your behavior*, Vintage, p.34, 2013.

[2] D. H. Lawrence, *Fantasia of the Unconscious*, penguin books, p.243, 1991.

[3] Sean Homer, *Jacques Lacan*, Routledge, p.69, 2005.

[4] 박찬부, “정신분석학의 언어적 무의식 재론-프로이트에서 라캉으로”, 한국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8권, 제1호, p.123, 2006.

[5] 김석, *프로이트&라캉 : 무의식의 초대*, 김영사, p.134, 2010.

[6] 박영원, “섹스어필 광고에 나타난 메타포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49, p.25, 2002.

[7] 김대규, *무의식의 수사학*, 해냄, p.23, 1992.

[8] D. Gillian, *Advertising as communication*, New york : Routledge, p.172, 1982.

[9] 히라가 마사코 지음, 김동환, 최영호 옮김, *은유와 도상성 : 인지언어학적 텍스트 분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p.65, 2007.

[10] J. Lacan, *Ecrit*, Seuil, pp.507-508, 1966.

[11] 김석, *에크리 :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p.139, 2014.

[12] 조엘 도르 지음, 홍준기, 강응섭 옮김, *라캉 세미나 · 에크리 독해 I*, 아난케, p.72, 2009.

[13] Algirdas Julien Greimas and Jacques Fontanille, *The Semiotics of Passions: From States of Affairs to States of Feeling*,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and London,

p.16, 1993.

[14] 박찬부, *라캉 :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 지성사, p.125, 2011.

저 자 소 개

박 상 혁(Sang-Hyeok Park)

정회원



- 1997년 2월 :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시각디자인전공(미술학사)
 - 2000년 2월 :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시각디자인전공(미술학석사)
 - 2008년 2월 : 홍익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4년 3월 ~ 2006년 2월 : 건양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2006년 12월 ~ 현재 : 충북도청 산업디자인실 근무
- <관심분야> : 기호학, 의미작용, 시각적 은유, 시각커뮤니케이션